

'98년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동향

(본회 통상협력과)

〈요 약〉

'98년 전자산업 해외투자동향 및 특징

- 외환위기로 인한 투자위축에도 불구하고 순투자는 339백만불로 전년수준유지
 - IMF이전 업계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투자지속
- 제조업에서 전자산업 투자비중은 점차 감소
 - 가전 및 부품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투자가 진행된 결과
('93년 : 63.2%, '95년 : 34.1%, '98년 : 19.6%)
- 대기업 위주의 투자 대형화
 -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보다 자금확보가 용이한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
(건당 평균투자: 477만달러, 182.2%증가)

○ 투자규모

- '98년말 순허가기준으로 93건, 624백만불을 기록, 전년대비 65.7%, 23.4% 감소
- 순투자기준으로는 71건, 339억불을 기록, 건수면에서는 65.5% 위축되었으나 금액면에서는 전년수준 유지

○ 투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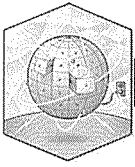
- 주요전략시장 중의 하나인 북미지역에 순투자기준으로 185백만불을 기록하며 54.6%의 높은 비중을 보임 ('97년 : 83백만불, 23.8%)
- 주요투자지역인 아시아지역의 경우 동남아 경제위기 등 경기불안으로 크게 감소한 108백만불, 31.9%비중을 차지('97년 : 232백만불, 66.7%)

○ 법인형태

- 생산 및 판매법인 순투자가 각각 138백만불, 135백만불로 전년대비 70.8%, 1,180.6% 큰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31백만불로 점차 증가 추세

○ 부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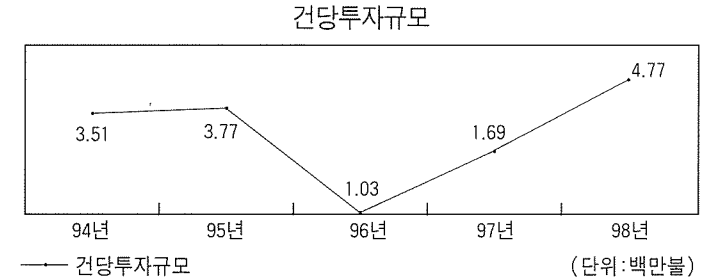
- 가전 및 부품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투자체개로 각각 144백만불, 156백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전년대비 648.6%, 106.9% 증가



1. '98년 전자산업 해외 직접투자 개괄

○ 순투자기준으로 투자건수는 급감, 투자금액은 전년수준에 약간 못미쳐

- '98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전체건수는 71건, 전년대비 65.5% 급감했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IMF이전 중장기 계획에 따른 복미, 유럽지역의 투자재개와 신시장개척을 위한 투자로 순투자금액은 339백만



불을 기록하여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외환위기 전인 '96년대비 금액면에서는 82.3%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제조업 중에서 전자산업 투자 비중 감소

- 제조업 중 전자산업 투자비중은 '93년 63.2%에서 '98년에는 19.6%로 감소추세이며 이는 '80년대부터 가전 및 부품을 중심으로 이미 업계의 해외투자가 상당부분 진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불, %)

연도	순허가			순투자		
	건수	금액	증가율	건수	금액	증가율
'89	134	1,508	-	134	958	-
'90	71	325	-	71	313	-
'91	70	579	78.1	69	200	-36.1
'92	84	252	-56.4	83	199	-0.5
'93	114	390	54.7	107	347	74.3
'94	226	777	99.2	189	663	91.0
'95	246	1,109	42.7	180	679	2.4
'96	259	1,001	-9.7	181	186	-72.6
'97	271	815	-18.6	206	348	87.1
'98	93	624	-23.4	71	339	-2.6
총누계	1,568	7,379		1,291	4,232	

* 연도별 신규 신고수리, 순투자기준 자료 : 재경부

<표 2> 제조업 중 전자산업 투자비중

(단위 : 백만불, %)

구분	'93	'94	'95	'96	'97	'98
제조업(A)	549	1,486	1,989	2,232	1,426	1,734
전자산업(B)	347	663	679	186	348	339
비중(B/A)	63.2%	44.6%	34.1%	8.3%	24.4%	19.6%

* 연도별 신규 순투자기준 자료 : 재경부

○ 대형투자 위주

- '98년 건당 투자규모는 477만 달러로 전년대비 182.2% 증가하였으며 이는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대기업을 기 투자계획 실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2. 지역별 동향

○ 북미지역 투자증가

- 기존 전략지역인 북미지역의 시장확대를 위한 대기업 위주의 신규투자가 집중되어 순투자기준으로 185백만불을 기록, 전년대비 123.3% 증가되었다.

○ 외환위기 지역은 감소

- 동남아, 중남미 등 외환위기

<표 3> 지역별 동향

(단위 : 천불, 건)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93	721,061	259	684,733	103	527,013	81	56,427	12	5,752	3	23,027	6
'94	217,343	138	291,549	33	138,877	11	13,200	4	100	1	1,500	2
'95	324,949	111	127,634	34	186,661	26	36,578	6	1,800	1	1,046	2
'96	59,302	109	78,309	43	30,353	18	17,846	8	457	2	37	1
'97	232,447	114	82,763	67	16,561	15	2,548	5	10,589	2	2,779	3
'98	108,173	36	184,180	22	13,399	9	200	1	31,586	2	560	1
누계	1,663,275	767	1,449,798	302	912,864	160	126,799	36	50,584	11	28,949	15

※ 연도별 신규 순투자 기준

(자료 : 재경부)

<표 4> 법인형태별 동향

(단위 : 천불, 건)

구분	생산		판매		연구개발		기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93	1,119,623	268	654,278	164	47,610	21	196,502	11
'94	392,168	136	125,927	36	28,025	9	116,449	8
'95	433,018	122	73,147	41	2,000	1	170,503	16
'96	97,269	124	16,603	32	50	1	72,382	24
'97	80,750	144	10,572	19	25,768	3	230,598	40
'98	137,955	34	135,381	17	31,167	6	34,225	14
누계	2,260,783	828	1,015,908	309	134,620	41	820,659	113

※ 연도별 신규 순투자 기준

(자료 : 재경부)

지역의 시장위축으로 투자가 급감하여 아시아지역의 경우 108백만불, 중남미의 경우 0.2백만불을 기록, 각각 53.5%, 92.1%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 대형투자를 통한 판매거점 확보 노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 R&D 투자 확대로 판매의 경우 135백만불을 기록, 전년대비 1,180.6%, 연구개발은 31백만불로 20.9% 증가하였다.

산거점확보를 위한 투자확대로 생산법인의 경우 전년대비 70.8% 증가한 138백만불 기록하였으며, 1,000만불이상의 대형투자 3건이 생산법인 순투자의 88%를 차지하였다.

3. 법인형태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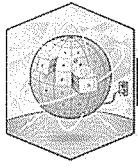
○ 판매와 연구개발에 주력

○ 시장선점위한 생산거점확보 추진

- 미국, 중국, 유럽 등 지역의 생

4. 부문별 동향

○ 가전과 부품을 중심으로 투자



〈표 5〉 부문별 동향

(단위 : 천불, 건)

구분	생 산		판 매		연구개발		기 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93	852,197	153	193,710	81	691,922	192	280,184	38
'94	84,201	45	289,051	43	159,668	84	129,649	17
'95	100,537	39	184,546	42	191,404	79	202,181	20
'96	23,537	39	30,691	32	59,611	86	72,465	24
'97	19,304	33	30,123	49	75,402	96	222,859	28
'98	144,512	13	3,723	17	155,985	26	34,508	15
누계	1,224,288	322	731,844	264	1,333,992	563	941,846	142

※ 연도별 신규 순투자 기준

(자료 : 재경부)

〈표 6〉 투자규모

(단위 : 건)

구분	십만불미만		십만불~백만불		백만불~천만불		천만불이상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 '93	62	13.4	166	35.8	183	39.4	53	11.4	464
'94	46	24.3	83	43.9	48	25.4	12	6.3	189
'95	33	18.3	75	41.7	62	34.4	10	5.6	180
'96	65	35.9	75	41.4	39	21.5	2	1.1	181
'97	51	24.8	113	54.9	38	18.4	4	1.9	206
'98	25	35.2	30	42.2	8	11.3	8	11.3	71

※ 연도별 신규 순투자 기준

(자료 : 재경부)

확대

- 가전은 IMF이전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전년대비 648.6% 증가한 144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부품은 반도체, 브라운관 등 설비 증설과 판매법인 투자확대로 106.9% 증가한 156백만불 기록하였다.

5. 투자규모별 동향

○ 건수를 기준으로 십만불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점차증가

- 십만불미만의 투자건수 비중이 '97년의 24.8%에서 35.2%로 증가한 반면 해외투자의 주류를 이루는 십만불~백만불의 투자건수 비중은 42.2%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 천만불이상의 대형투자 비중 확대

- 천만불이상의 투자는 건수로 8건, 11%의 비중을 보였으나 금액으로는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확보가 용이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형투자가 전개된 것으로 파악된다.

6. 주요업체 동향

업체명	투자지역	내 용
대우	인도	냉장고(10만대), 세탁기(10만대) 공장건설
	인도	CTV합작공장 생산설비 확충(30만대)
대우전자	폴란드	전자부품 및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포니카 지분인수(82%:508만달러)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판매법인(DESCAN)설립
대흥전자	중국	금속증착필름(MF) 콘덴서 시설확충(월생산능력:500만개→1천만개로 증설)
삼성전관	멕시코	브라운관 생산시설 확충(26" 27" 대형브라운관 생산)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월생산능력:300만개→400만개로 확대)
	미국	미국자회사인 AST리서치사 재무구조 개선(5천만달러)
	멕시코	대규모 복합가전단지 건설(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등)
	인도	냉장고, 세탁기 공장 건설 추진
	태국	현지 합작생산법인 TSE(Thai Samsung Electronics Co)복합가전단지로 육성 추진
삼성전기	필리핀	정보통신 부품공장 건설계획('99하반기)
삼화전자	태국	편향코일(DY), 고압변성기(FBT)용 토어 생산공장 설립(연생산능력: DY 용 600만개, FBT용 800만개)
성경정밀	중국	카오디오, 항법장치용 케이블어셈블리 생산
LG전자	인도	복합가전 생산라인 조성CCTV,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중국	브라운관 생산라인(29" CPT)증설
오리온전기	미국	브라운관 생산법인(오리온엔지니어링서비스) 운영 및 설비투자
	베트남	브라운관 생산설비 증설
콤텍시스템	인도	SI및 네트워크 장비판매법인(CCIPL:Convergent Communications India Pvt Ltd)설립, 모토로라 ING 합작
하남전자	중국	전해콘덴서용 알루미늄케이스 생산라인 증설(월생산능력:1억개→2억개로 확대)
한성전자	중국	전자레인지용 고전압콘덴서 공장 증설(월생산능력:20만개→40만개)